



The Effects of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and Performance in Organizational Level : Focused on the University

Moon-Seok Kang*

Department of Computation Administra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 B S T R A C 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and performance in university organization. For the analyzing, it measured the concerns rate to use multidimensional scale of the concern for university information privacy(CFUIP) that was developed in prior study.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s, it came up with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on structural equation model that is connected to decreasing of private information accidents from the factor deduce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the accident prevention of privacy, recognition elevation of the organization members. 140 administrators who are working for in 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ervices in university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CFUIP exerted to affirmative effec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Second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in organization exerted to positive effect in the recognition elevation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the accident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astly, the accident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ffected directly to reduce the accident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re is a limitation to elevate the organization members recognition.

© 2015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CFUIP, Information protection control activities, Organization level, Organization members recognition

ARTICLE INFO: Received 27 July 2015, Revised 14 August 2015, Accepted 14 August 2015.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Computation Administra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00 Hyecheon-ro Seo-gu Daejeon,

302-715, KOREA.

E-mail address: kangms@dst.ac.kr

1. 서론

조직의 개인정보보호는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관련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과 3월에 발생한 카드 3사 및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직수준의 개인정보관리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1억 4,000만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개인 소비자에게 불안감과 엄청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은 임원진들의 사퇴 및 3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경영상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했던 이용자의 66.5%는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노출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13년 조사된 69.9%에 비해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 문제시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Scott & Scott LLP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조사에 따르면 조직의 85%이상이 개인정보 침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조직은 74%의 고객감소, 59%가 침해사고로 소송의 위협에 직면했으며 32%는 벌금이나 추가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출 및 불법적인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대단위의 개인정보가 유출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을 묻

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3].

이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당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및 이에 따르는 수습 대책마련을 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 관리소홀로 인한 유출사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조직에게도 커다란 우려가 되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조직의 심각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이루어진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수준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조직수준에서의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직수준의 연구가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조직수준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개인수준의 연구에 비해 설문이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독특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5].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통제활동 및 관행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조직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하고 있는 대학 조직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개발된 대학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 척도의 법칙타당성(nomological validity)을 확보하여 향

후 조직단위의 정보 프라이버시 연구에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이 개인정보보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향후 조직단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조직의 통제활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수준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개념 및 선행 연구 고찰

정보통신기술의 끊임없는 발달은 사물인터넷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정보의 양 또한 방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후행 요인 탐색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춘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어 조직수준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Parks et al.(2011)은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시된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규제에 대한 처벌의 증대로 인하여 조직은 개인정보침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6].

정보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언급하고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학자로는 Smith et al.(1996), Malhotra et al.(2004)이 대표적이다.

Smith et al.(1996)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수집, 비인가된 2차적 사용, 오류, 부적절한 접근” 등 다차원의 염려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염려를 측정할 수 있는 CFIP(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측정모델을 개발하였다[7]. Malhotra et al. (2004)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공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정의 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할 수 있는 IUIPC(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측정모델을 제안하였다[8]. Kang & Chung(2014)은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또는 위협에 대한 염려”라 정의 하고 개인단위에서 이루어진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개념을 조직 단위로 개념화 하여 “비인가된 2차적 사용, 부적절한 접근, 예러, 기술적 보호조치 적절성, 정부규제 민감도”로 구성된 다차원의 염려가 결합된 2차요인 모형의 CFUIP(Concern For University Information Privacy) 측정모델을 개발하였다[4].

2.2 개인정보보호 염려와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 개인정보보호 성과

Fusilier & Hoyer(1980)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능력이 없을수록 개인정보보호 염려에 대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 염려와 통제사이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9].

Culnan(1993)과 Phelps et al.(2001)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의 상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염려의 원인이 되고 통제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염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이미 많은 개인수준의 연구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이 개인정보 염려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11].

Straub(1990)[12]의 연구에서는 관리적 통제활동인 사고 방지 및 내부 지침과 기술적 통제활동인 보안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정보보호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정보보호 통제 목적을 정보보호 사고 방지로 정의하였으며, Dhillon(2001)[13]의 연구에서는 조직내부의 보고체계 및 인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보호 사고방지 뿐만 아니라 조직과 개인정보의 무결성 유지, 구성원 및 경영진의 인식제고 같은 정보보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Moulton et al.(1996)[14]은 위험관리활동으로서 위험의 식별, 정보보호 통제의 평가와 선택이 개인정보에 대한 손실방지, 직원 및 외부자에 의한 정보보안 사고의 예방 등으로 정의했으며, Parkin(1996)[15]은 정보보호를 위해 위험분석과 함께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Von Solms(2001)는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규정의 준수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해야하는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6]. 이처럼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반적인 정보보호와 통제 및 성과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염려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통제활동과 직접적인 개인정보보호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실증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통제활동, 개인정보보호성과 등 관련 문헌들에 대한 고찰결과를 토대로 대학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 염려에 따른 통제활동이 개인정보 사고예방 및 사고감소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수립하였다. 대학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방법은 Kang and Chung[4]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CFUIP 측정척도에서 제시한 5가지 요인들과 19개의 측정항목을 통해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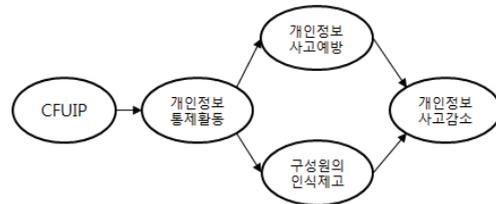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조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조직의 통제활동 및 개인정보 사고예방; 인식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의 사고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CFUIP)는 개인정보 통제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개인정보 통제활동은 개인정보 사고예방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개인정보 통제활동은 구성원의 인식제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 개인정보 사고예방은 개인정보 사고감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 구성원의 인식제고는 개인정보 사고감소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요인별 측정항목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인된 항목들을 활용하여 대학 조직의 개인정보보호관리 활동에 적합한 형태로 일부 수정하여 조사에 활용되었으며 각 연구단위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Variables

연구변수	조작적정의	출처
CFUIP	비인가된 2차적 사용 (SU)	[4]
	부적절한 접근 (IA)	
	오류 (ER)	
	기술적 보호 조치 적절성 (TE)	
	정부 규제 민감도 (P)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	대학조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침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수단으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통제 활동	[16]
개인정보 사고감소	개인정보 사고 발생 빈도	[12]
개인정보 사고예방	개인정보 사고 예방 정도	[13]
구성원의 인식제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식제고 정도	[14]

4. 실증분석

4.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각 대학 조직에서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 방법으로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143명이 응답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총 140부의 설문지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AMOS 20.0을 이용하여 측정모델 및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4.2 측정모델 분석

표 2. 측정모델 분석결과
Table 2.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요인	측정 변수	요인 적재치	t값	AVE	C.R
CFUIP	su_t	.742	7.717	.534	.847
	er_t	.705	7.414		
	ia_t	.559	6.023		
	te_t	.754	-		
	p_t	.428	4.691		
개인정보 통제활동	CON1	.825	-	.515	.841
	CON2	.836	16.779		
	CON3	.797	11.158		
	CON4	.873	12.580		
	CON5	.746	10.157		
개인정보 사고방지	PREV1	.924	17.603	.738	.934
	PREV2	.852	14.403		
	PREV3	.924	18.291		
	PREV4	.890	-		
	PREV5	.917	21.402		
구성원 인식제고	STAFF1	.970	-	.674	.910
	STAFF2	.974	33.139		
	STAFF3	.894	21.241		
	STAFF4	.679	10.782		
	STAFF5	.832	17.250		
사고빈도 감소	FREQ1	.762	10.115	.734	.953
	FREQ2	.919	12.841		
	FREQ3	.892	12.618		
	FREQ4	.786	-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구성요인에 대하여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충족여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측정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항목인 CFUIP는 1,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판별성을 검정하였으며, 각 구성개념의 측정모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GFI=0.860, AGFI=0.806 CFI=0.968, TLI=0.960, IFI=0.969, NFI=0.907, RMSEA =0.05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요인별 합성신뢰도(C.R≥0.7)와 평균분산추출값(AVE≥0.5)이 모두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어 신뢰성과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4.3 구조모델 분석

측정모델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하여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델의 적합도 검사결과 $\chi^2/df=1.524$, GFI=0.850, CFI=0.963, TLI=0.954, IFI=0.964, SRMR=0.074로 나타났다. 또한 절대적합지수들 가운데 표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RMSEA지수는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오류와 간명성까지 고려하는 지수로 이 값이 0.05~0.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값 또한 0.061로 임계치 기준에 충족하게 나타나 모든 지수가 권장수용기준을 양호하게 만족하고 있어 구조모델의 설명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조모델 적합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 및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가설검정 결과 구성원의 인식제고와 개인정보 사고감소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H5)을 제외한 가설(H1, H2, H3, H4)은 모두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정 결과에서 구성원의 인식제고가 개인정보 사고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각종 통제활동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구성원의 인식제고가 사고감소에 대한 영향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가설의 검정 결과
Table 3. Results of Structure Model Analysis

가설	경로	경로계수(C.R)	판정
H1	정보 프라이버시염려(CFUIP) →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	0.442(4.399)**	채택
H2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 → 개인정보 사고예방	0.722(8.673)**	채택
H3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 → 구성원의 인식제고	0.523(6.316)**	채택
H4	개인정보 사고예방 → 개인정보 사고감소	0.233(2.115)	채택
H5	구성원의 인식제고 → 개인정보 사고감소	0.030(0.283)	기각

주) * p < 0.05, ** p < 0.01

즉, 조직의 구성원들은 시행 초기에 개인정보보호라는 새로운 제도와 기술에 도입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인식을 통한 사고의 감소보다는 조직차원의 기술적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한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통제활동 사이의 영향 관계는 기존의 Culnan(1993)[10], Phelps et al.(2001) [11], Fusilier et al.(198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은 개인정보 사고예방, 구성원의 인식제고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Dhillon(2001)[13]의 연구에서 조직 내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보호에 대한 사고방지 뿐만 아니라 조직과 개인정보의 무결성 유지, 구성원 및 경영진의 인식제고 같은 정보보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조직차원의 다양한 개인정보 통제활동이 개인정보보

호에 대한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선행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직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통제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직에서 개인정보 사고예방 및 조직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그 동안 개인수준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개념을 조직수준에서 해석하고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조직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연구자 및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관리자에게 유의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 및 의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조직수준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개인수준에서 이루어 졌거나 또는 일반적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조직수준의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향후 조직단위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조직은 어떠한 통제도 의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으며 구성원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셋째,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통제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개인정보 사고감소를 위해 개인정보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구성원의 인식제고는 직접적으로 사고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초기 시행단계에서 구성원의 인식제고 노력보다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중점을 둔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통제활동과 교육을 통한 구성원의 인식제고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조직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고 이에 따르는 개인정보 통제활동과 성과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의 적용을 받는 전체 대학을 전수조사 하지 못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고 모집단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학별 환경과 상황에 따른 차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통제활동의 성과간에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이에 대한 준비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분석과 그 후의 연구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도를 측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 Information security survey(personal sector)*, 2015.
- [2] Scott & Scott LLP, *The business impact of data breach*, 2007.
- [3]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White Paper, Republic of Korea, 2015.
- [4] M. S. Kang, and Y. S. Chung, *Measurement development for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n organizational level : Focused on the university*,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Vol. 9 No. 4, pp. 473-481, August 2014.
- [5] F. Bélanger, and R. Crossler, *Privacy in the digital age : A review of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MIS Quarterly Vol. 35 No. 4, pp. 1017-1041, December 2011.
- [6] R. Parks, C. Chu, and H. Xu, *Healthcare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Issues, gaps and what next*, Proceedings of the 17th Americas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MCIS), Detroit, MI, 2011a.
- [7] H. J. Smith, S. J. Milberg, and S. J. Burke, *Information privacy : Measuring individuals' concerns about organizational practices*, MIS Quarterly, Vol. 20, No. 2, pp. 167-196, 1996.
- [8] N. K. Malhotra, N. K., S. S. Kim, and J. Agarwal,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15, No. 4, pp. 336-355, 2004.
- [9] M. R. Fusilier, and W. D. Hoyer, *Variables affecting perceptions of invasion of privacy in a personnel selection situ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5, No. 5, pp. 623-626, 1980.
- [10] M. J. Culnan,, *How did they get my name?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consumer attitudes toward secondary information Use*, MIS Quarterly, Vol. 17, No. 3, pp. 341-363, 1993.
- [11] J. E. Phelps, G. D'Souza, and G. J. Nowak,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onsumer privacy concer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 15, No. 4, pp. 2-17, 2001.
- [12] D. W. Jr. Straub, and D. Willian, *Discovering and disciplining computer abuse in organizations : A field study*, MIS Quarterly, pp. 45-60, 1990.
- [13] G. Dhillon, *Voilation of safeguards by trusted personnel and understanding related information security concerns*, Computer & Security, Vol. 20, No. 2, pp. 165-177, 2001.
- [14] R. Moulton, and M. Moulton, *Electronic communications risk management: a checklist for business managers*, Computers & Security, Vol. 15, No. 5, pp. 377-386, 1996.
- [15] R. Parkin, *IT security is a business issue not a technical one*, Computer & Security, Vol. 15, No. 5, pp. 411-417, 1996.
- [16] R. Von Sol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why standards are important*, Information management & Computer Security, Vol. 7, No. 1, pp. 50-57, 1999.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
보호 통제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대학조직을 중심으로

강문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산운영팀

요 약

본 연구의 주목적은 대학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과 개인정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대학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CFUIP)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염려 정도를 측정하고, 관련 선행문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 개인정보 사고예방, 구성원의 인식제고 등의 요인을 도출하여 개인정보 사고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대학조직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140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조직에서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은 개인정보 사고예방과 구성원의 인식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사고예방은 개인정보 사고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구성원의 인식제고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통제활동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구성원의 인식제고 노력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Moon-Seok Kang received the MS degree an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2009 and 2014, respectively. He has been a Team Manager in the Computation Administration Team at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1997.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Big data analysis, SmartWork, IS success strategies.

E-mail address: kangms@dst.ac.kr